

고흥 대옥대도 '프라이빗 글로벌 호텔리조트' 조성 탄력

고흥군이 영남면 대옥대도에 글로벌 호텔리조트를 조성하는 태양의 섬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식스센스, 태양의 섬'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가 인가준조지역에 도입하는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프로젝트에 고흥군 '식스센스, 태양의 섬' 개발사업을 포함한 하동군·남해시·고창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지정 규모가 5만㎡ 이상 3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장이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는 등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기준이 대폭 완화돼 지자체의 자

기재부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추진 대상지 선정 총 1천800억 투입...리조트·폴빌라 등 가든 조성

울권과 사업 수행에 탄력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고흥군 영남면 대옥대도에 조성 예정인 태양의 섬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천

8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브랜드리조트, 스파, 폴빌라, 펜트하우스 등을 포함한 총 51객실의 숙박시설과 테마가 있는 가든을 갖는 민간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호텔리조트 그룹에 위탁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영남면 남열리의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밭이 어우러진 대옥대도는 섬과 섬이 길게 늘어진 형상이 마치 왕의 옥대를 닮았다고 해서 옥대도(玉帶島)라 불렸으며,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섬이라 해 '태양의 섬'이라는 예명을 갖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태양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옥대도는 고흥의 아름다운 바다와 일출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선착장에서 섬까지 배를 이용해 5분 이

내 도달할 수 있어 프라이빗한 고급 휴양지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고흥군은 사업시행자인 ㈜태양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태양의 섬 개발사업이 인근에 조성 예정인 모노레일·고흥해안예술클러스터 관광 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흥=최봉환기자



화순군이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내년 1천227억 규모 국·도비 확보 추진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총 74건 공유

화순군은 23일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건의사업에 대한 활동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된 2025년도 국·도비 확보사업은 총 74건(신규 37건, 계속 37건)이며 국·도비 규모는 1천227억원이다.

주요사업은 ▲미생물 기반 백신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혁신 플랫폼 구축(240억원) ▲연동리 마을 숲-김삿갓유적지 관광벨트 조성사업(200억원) ▲

세계유산 선천사업(30억원) ▲생활체육시설(축구장, 다목적구장) 조성사업(73억원)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개설사업(31억원) ▲화순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32억원) 등이다.

구복규 군수는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시기"라며 "각 부서에 서는 전남도·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중점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군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 편성 순서 및 국회 심의 단계 등에 맞춰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순=이병철기자

보성군,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홍보 나서

귀농인 정착금·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보성군이 '2024 스마트 귀농 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귀농 귀촌 유치 홍보에 나섰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스마트 귀농 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여해 상담 전문관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사진>

보성군은 상담 전문관을 운영해 귀농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에게 귀농귀촌과 관련된 종합 정보와 맞춤형 지원 정책,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했다.

특히 귀농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지원 사업 Q&A'를 제공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한 2024년 '정책 홍보책자'를 상담에 활용했다.

또한 보성이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한 점과 쌀, 감자, 키위, 두릅, 쪽파, 녹차 등 산물



보성군이 '2024 스마트 귀농 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귀농 귀촌 유치 홍보에 나섰다.

재배 최적지인 점을 강조해 귀농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을 위해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을 비롯한 현장 실습 교육, 재배 이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귀농인 정착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선택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 초기 정착과 귀농 계획 실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에 파고부이 설치

소형 선박 통항 안전성 제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항계 밖 정박지를 통항하는 소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통항제한 규정에 따라, 파고 측정을 위한 기상관측 부이 1기를 설치·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통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편선사업에 이용되는 25미만 선박으로서, 주로 통선이 해당된다.

소형 선박의 특성상 운항 시 파고의 영향에 취약하나 현재 기상청 부이 금오도 인근에 설치돼 있어 항계 인근의 정확한 파고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해수청은 파고부이를 우암도류 인근 해상에 설치했으며, 파고정보는 30분



단위로 측정·전송된다.

해당 정보는 여수항 대선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항만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미경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앞으로도 통선 등 소형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무역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장경원 순천시의원,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 개정조례안 의결

SOS 사업 추진 신설·복지소외계층 맞춤 서비스 제공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사진)은 23일 "대표 발의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순천 SOS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 SOS 사업 추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 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S(Save Our Suncheon citizen)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순천 SOS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돌발 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긴급의료비) ▲생활불편해소, 물품·생계지원,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 등을 포함한다.

장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의 범위를 넓히고 위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됐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두터운 복지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작

내일부터 60만원 구례사랑상품권

구례군은 23일 "오는 25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구례군은 지난 2월23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5천 214명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울 경우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 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기존 구례사랑상품권이 소규모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농어민 공익수당은 정책발행분으로 발행된 때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장성군 '문화·복지 거점' 향릉면 문화센터 준공

쉼터·체육시설 등 구성...교육·모임 활동 지원

장성군은 "최근 향릉면 문화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향릉면 문화센터는 문화·복지 거점 기능은 물론, 주민 소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향릉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향릉면 문화센터(윙펄리 92-1)는 4천17㎡ 규모 부지에 건물과 주차장, 쉼터,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는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마을 부엌을 갖춰 교육, 모임 등 다양한 주민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센터 건립은 '향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센터 건립 ▲소통광장·안전마을길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향릉시장 부근 '향릉소통광장(장산리 9-23)'은 시장 고객과 주민을 위한 교류와 휴식의 공간이다. 주차장 166면과 녹지, 보행로, 팔각정, 의자 등을 설치했다.



'안전마을길'은 향릉시장, 문화센터, 소통광장 인근에 조성된 길로 도로 82m, 인도 288m 규모다. '역량강화사업'은 전문가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내실을 다진다. 김한중 군수는 "새롭게 문을 연 문화센터가 향릉면의 부흥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곡성군, 탄생 축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법적 효력·출생 후 1년 이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곡성군은 23일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 등이 기재된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아기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택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군은 산모 산후조리비 지

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효과로 곡성 출생아 수는 2022년 44명에서 지난해 62명으로 40%가량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정문수 민원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기 탄생의 기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색다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